

융복합 집담회

융복합 접근방법에 따른 미래 도시·환경 연구의 조망

미래의 도시의 모습과 융복합 연구동향
인공지능 시대의 서울: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로공간 활용방안

서울대학교 연구처의 지원을 받아 환경계획학과 김태형 교수의 주관 하에 2015년 2학기에 3차례 융복합 집담회가 진행되었다. 매달 첫째 금요일 점심(12:00-14:00) 시간에 간단한 도시락과 함께 특강이 이루어졌다. 이 집담회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융복합적이며, 학제적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모셨다. 다음의 내용은 융복합 집담회의 발제자 특강 내용을 박상아 학생기자가 요약한 것이다.

제5회. 미래의 도시의 모습과 융복합 연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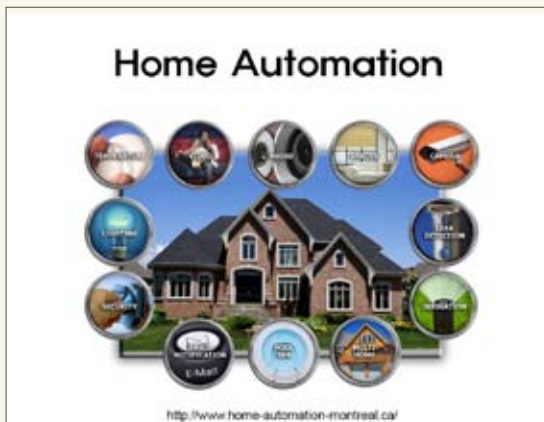
정지훈(경희사이버대학교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2015.09.04

제5회 집담회에서 경희사이버대학교 정지훈 교수는 미국의 도시변화과정을 통해 ‘소외되지 않는 미래도시’의 필요성에 기반을 둔 ‘미래 도시’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였다. 그는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술발전을 통한 대체재 발생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와 인구 변화 등으로 현대도시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양상을 반영한 스마트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물리적 관점에서는 도시의 인프라를 통해 인구의 변화, 시민들의 건강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그는 미래 주거환경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공급체계 및 구체적인 주거환경을 예로 들며, 변화로 인한 경제적 이점 및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정부의 정책이 도시의 변화와 주거환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며 미래도시에 대해 융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제6회. 인공지능 시대의 서울: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김대식(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2015.10.02.

제6회 집담회에서 KAIST 김대식 교수는 미래도시에서 활용될 실질적인 인공지능의 기초데이터 ‘Structured Data’와 ‘Unstructured Data’에 대한 개념 및 한계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사례로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음성인식 서비스, 아마존, 구글 상황인식 서비스, 강아지 인식로봇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Unstructured Data의 오랜 축적은 기계가 사실상 재현할 수 없었던 보편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직업군, 인프라, 사회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과거 로마의 사례를 들며 인공지능이 사회에 도래했을 때 예상되는 중산층 하락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며 디스토피아로 향할 수 있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18개월마다 반도체의 접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현 사회의 양상에서 IT와 사회와의 관계는 떼놓을 수 없음 또한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에서는 미래 도시에서 전문가와 학생들의 역할, 도시공간 구조와 인공지능의 연결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적범위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제7회.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로공간 활용방안,

이신해(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실장), 2015.11.06

제7회 집담회에서 서울연구원 이신해 실장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교통연구 흐름과 도시의 변화에 따른 도로에 인접한 공간 변화를 광화문 광장, 청계천 광장, 승례문, 신세계백화점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였다. 과거에는 자동차 이용 등 운전자와 관련된 주제가 교통 분야의 주된 흐름이었다면, 현재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공간, 즉 ‘도로 다이어트’가 키워드로 변화되었다. 또한 도로 공간에 인접한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이에 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를 위해 고려해야 할 현 교통체계, 정책의 한계점을 제시하며 ‘교통량 분산’에 대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켜주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에서는 이동성이 많은 특정 사람들을 위한 정책여부, 서울광장의 구체적인 교통대책, 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 통제의 한계점 등이 지적되었다. 프로젝트 이후 교통량 데이터축적을 통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